'격자 구조'에 투영된 '오늘, 우리' 도시의 삶

조윤성 'URBAN GRID-COMPOSITION'展…오는 19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재료·기법서 다양한 실험 모색한 'URBAN GRID' 연작 회화 선봬

우리를 둘러싼 현대사회의 시각적 환경을 대비 관계를 중심으로 재해석해 펼쳐낸 작품 전시가 열리고 있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19일까지 조윤성 작가 개인전 'URBAN GRID-COMPOSITION'을 개최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인에게 새로운 자연이 된 도시환경(URBAN)과 근간을 이루는 격자구조(GRID)를 주제로 삼아 화면구성(COMPOSITION)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작을 선보인다.

'URBAN GRID-COMPOSITION'의 뿌리는 작가가 2004년부터 펼쳐온 '기호적 풍경'에 있다.

지난 20여 년간 작가는 동시대 시각환경을 재해석, 캔버스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창작 방식을 심화, 확장해왔다.

브랜드나 엠블렘 소재로 소비문화와 현대사회에 대해 이야기 해온 기존 작업들은 화려한 화면구성과 색채, 유기적인 형태 등을 통해 작가만의 사회적-기호 이미지로 나타났다.

'시선'과 '사유'라는 필터를 걸쳐 회화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지는 작가의 작업은 여타 작업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독창적 작품을 만들었다.

'URBAN GRID-COM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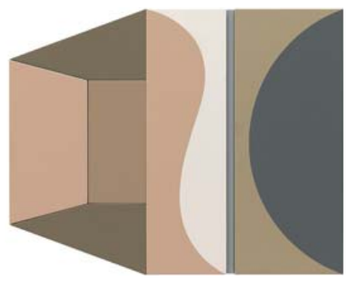
다양한 실험을 통해 확장을 모색해온 작품세계는 'URBAN GRID-COMPOSITION'에서 도시와 건축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영역을 선보인다.

'빌딩 숲'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도시와 그 안을 채운 건축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 이상으로 친숙한 환경이 됐다. 작가는 이를 재해석하면서 '격자'를 시각적 표현의 중심에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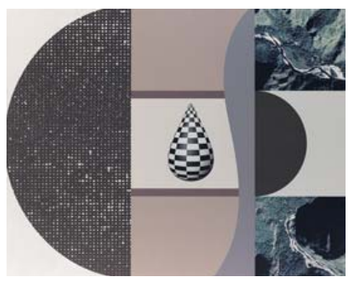
도시계획과 건축물 설계뿐 아니라, 디자인이나 컴퓨터 설계의 기본 단위로서 창작자들이 활동하는 터전인 동시에 일종의 제약이자 규칙으로 작동하는 '격자구조'는 동시대 시각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도시 건축물 형상을 기반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개념을 차용해 새로우면서도 어딘가 친숙한 화면을 만들어냈다.

캔버스 위 전통적인 기법으로 그려진 회화부터 스테인리스와 우레탄 안료 등 도시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를 이용한 작업, 디지털 이미지와 회화를 조합한 작업까지 다채로운 재료와 기법은 앞으로 펼쳐질 '어반 그리드'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URBAN GRID-STRUCTURE'



'URBAN GRID-서사적 공간'

김수영 광주신세계갤러리 큐레이터는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관해 끊임없이 탐구하며, 지역미술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교육자로서 활동해 온 작가의 작품세계 최전선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작가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미 있는 형식'을 함께 감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금관악기·가곡의 선율 빛고을 만추를 적시다

7·21일 목요콘서트…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올해 마지막 목요콘서트 무대로 초대합니다!"

광주문화재단이 7일과 21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11월 목요콘서트 무대를 연다.

먼저 7일 공연은 웅장하고 화려함의 상징인 금관악기 5중주 단체 '졸리브라스사운드'가 나선다.

금관악기만이 갖는 독특한 음색과 화려함, 웅장한 사운드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단체다.

클래식 및 재즈, 스윙, 영화음악 공연으로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출연진은 트럼펫 오창훈·하민중, 호른 오은영, 트럼본 홍성혁, 튜바 장현성이다.

올해 목요콘서트 마지막 공연은 신진 성악가들로 구성된 질러(Ziller) 공연팀이 장식한다.

이들은 클래식의 정통성을 지켜가며 다채로운 음악 장르로 새로운 감동을 전달할 뿐 아니라 한국가곡부터 클래식, 팝 음악까지 다양한 곡을 통해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졸리브라스사운드'(사진 위)와 '질러'

소프라노 서혜원·최효리·박찬미·신지유·최시윤, 메조소프라노 김혜원, 피아노 박주은, 해설 김진희가 출연한다.

목요콘서트 입장료는 1인당 5천원이며, 수익금은 전액 공연팀에 전달한다. 관람 예약 및 문의 062-670-7942.

/최명진 기자

물질과 비물질 사이 초월의 세계

박아론 초대전 'Non-materials in matters'…드영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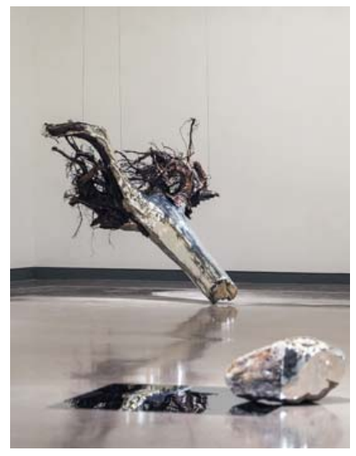
현대사회 속 물질과 비물질 사이 관계에 집중하며 어떤 것이 물질을 초월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오는 19일까지 드영미술관에서 열리는 박아론 기획초대전 'Non-materials in matters'다. 이번 전시는 광주 동구 지원사업인 청년작가 공모선정전 일환으로 박아론 작가의 올해 최신 설치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와 같이 작가의 신작들은 물질과 그 속에 존재하는 비물질적 가치에 집중한다.

전시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며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적 영향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돌아보게 한다.

작가는 "궁극적으로 모든 물질 속에는 비물질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 내가 느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또 다른 에너지로 전환돼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떠오른 뿌리'

/최명진 기자

흔한 동네 풍경, 문화예술로 피어나다

양재영·이두환·이선희 작가 10일까지 나주작은미술관 개관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나주 원도심에 현대미술을 만날 수 있는 미술관이 개관했다.

복합문화공간 나주정미소(나주시 과원길5)에 문을 연 나주작은미술관이다.

개관을 기념해 나주작은미술관은 오는 10일까지 '흔한 동네 풍경_정미소 GROUND'를 주제로 전시를 연다.

나주 정미소와 참새방앗간 카페를 연계해 열리는 전시로, 양재영·이두환·이선희 3명의 참여작가가 나주 지역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포착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예술로 승화시킨다.

양재영 작가는 동화 속 인물과 어린 시절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소재로 현대미술과의 만남을 시도하면서 잃어버린 순수성을 일깨워준다. 절제된 색채와 단순한 도형을 사용해 캐릭터가 지닌 이미지를 섬세하게 표현하며, 작품에 동심과 향수를 투영한다.

이두환 작가는 현대사회의 통념과 예술적 일탈, 내면과 본성의 관계를 주제로 현대인이 느끼는 소외감과 내적 갈등을 형상화한다. 그 메시지는 사회적 자아와 본능적 자아 사이 긴장과 현대인의 끊임없는 자기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주에서 활동하던 이선희 작가는 제주로 이주한 후, 제주 곳곳의 풍경을 작품에 담아오고 있다. 제주의 계절과 역사, 그곳에서 느끼는 이민자와 현지인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나주작은미술관 관계자는 "미술관 없는 도시 나주에서 예술이 숨 쉬는 풍경을 그리던 주민들의 오랜 꿈이 이뤄졌다"며 "이곳에서 펼쳐질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은 지역 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희作 '곶자왈_고사리장마'

/최명진 기자

무료로 드립니다

변하기 쉬운 신선제품
처음 그대로 신선도 유지 제품 개발 화제!

포도, 새우, 김치, 깍두기, 과일, 야채, 소고기, 굴비, 치즈, 조개, 생선 등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도 변질되기 쉬운 제품 1일이 넘으면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끝!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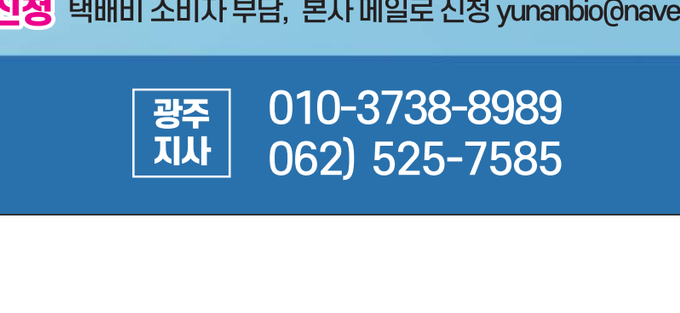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푸른도깨비 실제사용과 비사용의 비교

식빵 부패실험 비교
방부제 미처리 식빵은 2일만에 곰팡이가 발생함. 푸른도깨비는 어떠한 세균도 발견하지 않는다.

사과 부패실험 비교
푸른도깨비를 처리한 농산물 및 과일에서는 곰팡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공장, 택배물류센터 환영!
무료 신청 택배비 소비자 부담, 본사 메일로 신청 yunanbio@naver.com

전국 시도 총판 모집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지사 010-3738-8989
062) 525-7585